

제 117 회

# 한자실력급수 자격시험

(문제지)

※ 정답은 별도 배부한 OCR답안지에 작성함

|      |      |    |     |      |  |   |  |   |  |   |  |  |
|------|------|----|-----|------|--|---|--|---|--|---|--|--|
| 급수   | 사범급  | 유형 | A형  | 수험번호 |  | - |  | - |  | - |  |  |
| 문항수  | 200  | 객  | 50  | 성명   |  |   |  |   |  |   |  |  |
|      |      | 주  | 150 |      |  |   |  |   |  |   |  |  |
| 시험시간 | 120분 |    |     |      |  |   |  |   |  |   |  |  |

## 수험생 유의 사항

- 수험표에 표기된 응시급수와 문제지의 급수가 같은지 확인하십시오.
- 답안지에 문제유형(A, B)를 <예시>와 같이 표기하십시오.
- 답안지에 성명, 수험번호, 생년월일을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.
- 감독관의 설명을 들은 후 문제를 풀기 시작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주·객관식 답안란에는 검정색 펜을 사용하십시오.
- 답안지의 수정방법:
  - 객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 만을 사용하십시오.
  - 주관식 답안의 수정은 수정테이프를 사용하거나, 두 줄을 긋고 다시 작성하십시오.
- 주관식은 임의로 간자나 약자를 기입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반드시 정자로 정서하여 기입하십시오.
- 주관식Ⅰ은 OCR답안지에, 주관식Ⅱ는 별도의 주관식Ⅱ답안지에 작성하십시오.
- 문항번호에 맞지 않게 기재한 답은 오답으로 처리되니 문항번호와 답안지의 번호(객관식과 주관식 구분)를 잘 확인하여 답안을 작성하십시오.
- 수험생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지에 이물질이 묻거나, 객관식 답안을 복수로 표기할 경우 오답으로 처리되니 답안지를 구기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지 마십시오.
- 시험 시간이 종료되면 필기를 멈추고 감독관의 안내에 따르십시오.
- 시험 시간 중에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사용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.

&lt;예시&gt;

|      |   |
|------|---|
| 문제유형 |   |
| A형   | ● |
| B형   | ○ |

■ 이 문제지는 응시자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.

공인민간자격관리 · 운영기관



社団法人 漢字教育振興會

韓國漢字實力評價院

# 제117회 한자실력급수 [ 사범급 ] 문제지

## 객관식 (1~50번)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같은 한자는?

1. [ 听 ] ① 炘 ② 罌 ③ 很 ④ 肋
2. [ 恬 ] ① 帖 ② 拈 ③ 貼 ④ 恬
3. [ 鋏 ] ① 伋 ② 恰 ③ 颯 ④ 戢
4. [ 瘞 ] ① 猊 ② 勅 ③ 袂 ④ 醴
5. [ 纏 ] ① 濬 ② 萃 ③ 衫 ④ 鐮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음이 다른 한자는?

6. [ 楣 ] ① 薇 ② 徽 ③ 糜 ④ 徽
7. [ 洩 ] ① 蔦 ② 羸 ③ 罍 ④ 罹
8. [ 薑 ] ① 舡 ② 腔 ③ 肛 ④ 羌
9. [ 娃 ] ① 歪 ② 卦 ③ 倭 ④ 矮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와 뜻이 비슷하거나 같은 한자는?

10. [ 礪 ] ① 礪 ② 礪 ③ 砥 ④ 砒
11. [ 娜 ] ① 姸 ② 嫻 ③ 妣 ④ 孀
12. [ 啼 ] ① 呵 ② 喫 ③ 喃 ④ 呱
13. [ 昵 ] ① 狎 ② 狩 ③ 猜 ④ 狺

※ 나머지 셋과 부수가 다른 한자는?

14. ① 衍 ② 衍 ③ 銜 ④ 衡
15. ① 頃 ② 須 ③ 頊 ④ 煩

※ 다음 중 한자어의 독음이 바르지 않은 것은?

16. ① 丘壟 : 구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孱子 : 잔혈  
       ③ 鑊烹 : 획팽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郁李 : 옥리
17. ① 寰區 : 완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冪數 : 맥수  
       ③ 狹窄 : 협착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岑樓 : 잠루
18. ① 緻密 : 치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稍勝 : 초승  
       ③ 裨益 : 비익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馳詣 : 치지
19. ① 鳳雛 : 봉추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白蠟 : 백랍  
       ③ 縊死 : 익사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躋攀 : 제반
20. ① 逡巡 : 준순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眞荏 : 진임  
       ③ 口吻 : 구물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④ 釉藥 : 유약

※ [       ] 안의 한자어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?

21. 새벽이면 [ 해수병 ]을 앓는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건넌방에서 들려온다.  
       ① 咳嗽病 ② 孩漱病 ③ 咳漱病 ④ 孩嗽病
22. [ 어신필 ]은 임금의 친필을 가리킨다.  
       ① 御蜃筆 ② 御宸畢 ③ 御蜃畢 ④ 御宸筆
23. 한반도를 [ 위요 ]하고 있는 정치·경제·군사적 상황이 매우 긴박한 가운데 정상 회담이 열리게 되었다.  
       ① 緯繞 ② 圍撓 ③ 圍繞 ④ 緯撓
24. [ 수류탄 ]을 투척할 때는 안전 수칙을 지켜야 한다.  
       ① 銖劉彈 ② 手榴彈 ③ 銖榴彈 ④ 手劉彈
25. [ 단백질 ]은 아미노산으로 분해되어 흡수된다.  
       ① 象白質 ② 象百質 ③ 蛋白質 ④ 蛋百質
26. 자나 깨나 책만 읽는 사람을 놀림조로 [ 반와 ]라고 한다.  
       ① 盤蛙 ② 頒蛙 ③ 潘蛙 ④ 泮蛙
27. 어진 이를 [ 참소 ]하는 간신의 무리가 득세하니 나라의 앞날이 걱정이다.  
       ① 讒訴 ② 讖訴 ③ 懺訴 ④ 慘訴

※ [       ] 안에 들어갈 한자로 알맞은 것은?

28. 세상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[       ]하지 말자.  
       ① 褐斑 ② 蜈蚣 ③ 挫折 ④ 湧出
29. 그는 사업에 실패한 후 [       ]을 감추었다.  
       ① 投擲 ② 蹤迹 ③ 梭田 ④ 移秧
30. 옷차림이 [       ]하다고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안 된다.  
       ① 襤褸 ② 飯顆 ③ 雯華 ④ 罕古
31. 우리 아버지 세대는 조국 근대화의 [       ] 아래 열심히 일했다.  
       ① 筮仕 ② 深濼 ③ 旗幟 ④ 卜筮
32. 그들은 서둘러 기차에 [       ]했다.  
       ① 臆說 ② 搭乘 ③ 活潑 ④ 滔騰
33. 형국장에서 형조 판서가 박 대감을 끌어앉힌 채 [       ]하였지만 그는 억울함을 호소할 뿐이었다.  
       ① 鎮痛 ② 度忖 ③ 棺槨 ④ 推鞠

34. 그의 [ ]스러운 행동은 주위 사람의 원성을 살 만했다.

- ① 僭濫 ② 湛樂 ③ 黔突 ④ 墓碣

※ 주어진 뜻에 알맞은 한자어는?

35. 일의 빈구석이나 잘못된 것을 임시변통으로 이리저리 주선하여 꾸며 댈.

- ① 涕淚 ② 獐狷 ③ 乖離 ④ 彌縫

36. 괴이한 버릇.

- ① 贖良 ② 瑪瑙 ③ 怪癖 ④ 窘塞

37. 험한 벼랑 같은 곳에 낸 길.

- ① 脈絡 ② 鋸屑 ③ 忌諱 ④ 棧閣

38. 은혜가 매우 넓고 두터움.

- ① 霑潤 ② 優渥 ③ 驟雨 ④ 蛟螭

39. 사건의 실상을 조사하여 내용을 알아냄.

- ① 覈得 ② 秕政 ③ 彭湃 ④ 驕慢

40. 진리나 사실, 입장 따위를 드러내어 밝힘.

- ① 嗅覺 ② 貫穿 ③ 儻禮 ④ 闡明

41. 말하는 이가 자기의 병을 낮추어 이르는 말.

- ① 燕窩 ② 儀軌 ③ 微恙 ④ 收攬

※ [ ]안의 한자성어의 속뜻으로 알맞은 것은?

42. [ 一覽輒記 ]

- ① 총명하고 기억을 잘함.  
 ②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하여 소문을 널리 퍼뜨림.  
 ③ 묻는 대로 거침없이 대답함.  
 ④ 무슨 일이든지 해 보려고 움직이기만 하면 번번이 남에게 꾸지람을 들음.

43. [ 走獐落兔 ]

- ① 일을 피하다가 도리어 밀천까지 잃음.  
 ② 사람이 교묘하게 잘 숨어 재난을 피함을 이르는 말.  
 ③ 이미 저지른 잘못에 대하여 후회하여도 소용이 없음을 이르는 말.  
 ④ 뜻밖의 이익이 생김을 이르는 말.

44. [ 矮者看戲 ]

- ① 전쟁이 없는 태평한 시대를 뜻함.  
 ②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도리어 비웃음을 당함을 뜻함.  
 ③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남을 따라 그럽다고 하는 것.  
 ④ 불굴의 의지로 본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.

45. [ 劈破門閥 ]

- ① 자연계에서나 사회에서 큰 변혁이 일어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 
 ② 인재를 등용할 때 문벌을 가리지 아니함.  
 ③ 양반이 없는 시골이나 인구수가 적은 성씨에 인재가 나서 본래의 미천한 상태를 벗어남.  
 ④ 일의 옳고 그름은 따지지 않고 뜻이 같은 무리끼리는 서로 돕고 그렇지 않은 무리는 배척함.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水陸草木之花가可愛者甚①菴이라 晉陶淵明獨愛菊하고 自李唐來로 世人甚愛牡丹이라 予獨愛②蓮之出於淤泥而不染하고 濯清漣而不夭라 中通外直 不蔓不枝하고 香遠益清하여 ( ㉔ )淨植하여 可遠觀而不可褻翫焉하니 予謂菊은 花之隱逸者也요 牡丹은 花之富貴者也요 蓮은 花之君子者也라 噫라 菊之愛은 陶後③鮮有聞이오 蓮之愛는 同予者何人고 牡丹之愛는 宜乎( ㉕ )矣로다

《古文眞寶》

46. 문맥상 ㉔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?

- ① 쉬다 ② 불어나다  
 ③ 많다 ④ 우거지다

47. 윗글에서 언급된 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가지나 덩굴을 여기저기 뻗지 않는다.  
 ② 물결에 반짝이는 자태가 요염하다.  
 ③ 멀어질수록 향기가 맑다.  
 ④ 진흙에서 피어나지만 더럽지 않다.

48. ㉕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正正 ② 淀淀 ③ 亭亭 ④ 丁丁

49. 다음 밑줄 친 부분이 ㉕의 뜻으로 쓰인 것은?

- ① 珍鮮 ② 新鮮 ③ 鮮明 ④ 鮮血

50. ㉕에 들어가기에 가장 알맞은 것은?

- ① 罕 ② 當 ③ 貴 ④ 衆

**주관식 I (주1~주100번)**

■ [주관식 I]의 답은 [OCR답안지] 주관식 답안란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한자의 훈과 음을 쓰시오.

- 주1. 斃 ( )
- 주2. 震 ( )
- 주3. 佇 ( )
- 주4. 釵 ( )
- 주5. 贄 ( )
- 주6. 醜 ( )
- 주7. 碗 ( )
- 주8. 袂 ( )
- 주9. 誅 ( )
- 주10. 迥 ( )
- 주11. 聳 ( )
- 주12. 醯 ( )
- 주13. 屨 ( )
- 주14. 邏 ( )
- 주15. 詹 ( )
- 주16. 麴 ( )
- 주17. 滾 ( )
- 주18. 騫 ( )
- 주19. 梁 ( )
- 주20. 搶 ( )
- 주21. 燼 ( )
- 주22. 顛 ( )

※ 한자의 부수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23. 樊 ( )
- 주24. 奮 ( )
- 주25. 寒 ( )
- 주26. 孜 ( )

※ 훈과 음에 맞는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27. 갓끈 리 ( )
- 주28. 검은빛 치 ( )
- 주29. 두터울 전 ( )
- 주30. 통나무 박 ( )
- 주31. 솔/큰종 휴 ( )

- 주32. 편안할 제 ( )
- 주33. 두렁 맥 ( )
- 주34. 소경 몽 ( )
- 주35. 나무끝 미 ( )
- 주36. 가시/꼭지 체 ( )

※ ○에 공통으로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쓰시오.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<보기> | 廓 奸 嬖 獍 俵 復 歉 烈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
- 주37. 內○ ○臣 房○ ( )
- 주38. 輪○ ○然 恢○ ( )
- 주39. 災○ ○年 凶○ ( )
- 주40. ○毒 ○慝 ○猛 ( )

※ 다음 한자어의 독음을 쓰시오.

- 주41. 齋糧 ( )
- 주42. 沈漬 ( )
- 주43. 沙礫 ( )
- 주44. 蝦醢 ( )
- 주45. 摺扇 ( )
- 주46. 鈎勒 ( )
- 주47. 這間 ( )
- 주48. 擅權 ( )
- 주49. 蹲縮 ( )
- 주50. 瓦葺 ( )
- 주51. 誘掖 ( )
- 주52. 斜稜 ( )
- 주53. 巍然 ( )
- 주54. 滲透 ( )
- 주55. 荔枝 ( )
- 주56. 鸞輅 ( )

※ [ ]안 단어를 문맥에 맞게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57. 10여 년 전에 헤어진 여자로부터 한번 만나자는 [전갈]을 받고 나는 한동안 망설였다. ( )
- 주58. [전갈]의 독은 사람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. ( )
- 주59. 네가 친구로서 [엄호]는 못 해 줄망정 고자질할 줄은 몰랐다. ( )
- 주60. 소대장은 명령이 있을 때까지 [엄호]에 머물러 있으라고 외쳤다. ( )

※ 문장에서 잘못 쓴 漢字를 바르게 고쳐 쓰시오. (단, 음이 같은 한자로 고칠 것)

- 주61. 이 報告書는 論理가 程然하고 順序가 體系的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2. 글이 너무 길어지면 張荒하고 지루해질 수가 있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3. 그는 法律에 著觸되지 않는 範圍 안에서 行動하였다고 主張하였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4. 그 選手는 프로 野球에 進出한 첫해에 多勝王에 오르는 氣炎을 吐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5. 그는 노름으로 財産을 紛蕩질하다가 結局에 破産하였다.(            →            )

※ 풀이에 맞게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66. [놀삼]: 말을 더듬어 듣기에 힘들고 답답함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7. [궁홀]: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8. [패표]: 쪽박을 찬다는 뜻으로, 빌어먹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69. [척독]: 길이가 한 자 정도 되는, 글을 적은 널빤지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0. [전제]: 고기를 잡는 통발과 토끼를 잡는 울가미라는 뜻으로,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이르는 말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1. [진섬]: 모두 망함. 또는 무찔러서 모두 없애 버림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2. [교반]: 휘저어 섞음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3. [현혹]: 정신을 빼앗겨 하여야 할 바를 잊어버림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4. [저포]: 백제 때에 있었던 놀이의 하나. 주사위 같은 것을 나무로 만들어 던져서 그 곳수로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, 윗놀이와 비슷함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5. [전분]: 감자, 고구마, 물에 불린 녹두 따위를 갈아서 가라앉힌 앙금을 말린 가루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문장 속 [            ]안의 단어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76. 노인은 [청려장]에 의지하면서 집을 나섰 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7. 과식, 폭식, 식탐자들이 가장 잘 걸리는 질병이 당뇨나 [취장암]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8. 아군의 전투기는 적군의 폭격기를 공중에서 [요격]하였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79. 그들은 소극적이고 [퇴영적]인 성격의 사람들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0. 우리 사회에 [만연]해 있는 불신풃조를 빨리 없애야 한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1. [도박]을 상습적으로 하다가는 패가망신하기 십상이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2. 며칠 동안 깎지 않았더니 턱에 [수염]이 수북하게 자랐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3. 과거의 역사를 [날조]하거나 창작한 경우는 진정한 역사 서술이 아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4. 아내는 상품 할인권을 [절취선]에 맞춰 잘랐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5. 가을 하늘 [공활]한데 높고 구름 없이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일세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6. 그는 돈을 모으는 데는 땅벌처럼 [악착]스러운 사람이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7. 그녀는 [척추]를 바로 세우기 위해 매일 교정 체조를 하고 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8. 어제 전투에서 소화기 67정을 [노획]했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89. 어머니는 봉선화, 수선화 등 갖가지 화분을 들여서 앞뜰을 [오밀조밀]하게 꾸미셨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- 주90. 물이 끓자 [주전자]의 뚜껑이 저절로 들썩거렸다. (            )

※ [     ] 안의 한자성어의 뜻을 읽고 ○ 안에 들어갈 알맞은 漢字(正字)를 쓰시오.

- 주91. [死不○目] 근심이나 한이 남아 있어 죽어서도 눈을 편히 감지 못함. (     )
- 주92. [左○右顧] 앞뒤를 재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. (     )
- 주93. [暗中○索] 은밀한 가운데 일의 실마리나 해결책을 찾아내려 함. (     )
- 주94. [畫龍點○] 무슨 일을 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. (     )
- 주95. [笑裏○刀]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마음속에는 해칠 마음을 품고 있음을 이르는 말. (     )
- 주96. [汗出○背]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. (     )
- 주97. [○然開悟] 모르던 일을 갑자기 깨달음. (     )
- 주98. [○牆之變] 형제들 사이의 싸움. (     )
- 주99. [崎○罔測] 운수가 사납기 짝이 없음. (     )
- 주100.[肉○負荊] 형장으로 맞아 사죄하겠다는 뜻을 나타냄을 이르는 말. (     )

**주관식 II (주101~주150번)**

■ [주관식III]의 답은 별도의 [주관식 II 답안지]에 검정색 펜으로 작성하시오.

※ [     ] 안의 한자성어 활용이 적절하면 ‘O’, 적절하지 않으면 ‘X’로 표기하시오.

- 주101. 땀 흘리며 열심히 훈련한 선수가 결승전에 오른 것을 [盲龜浮木]에 비유할 수 있다. (     )
- 주102. 임금은 간신들의 참소에 근거하여 끝내 그 충신을 [極邊遠竄]하였다. (     )
- 주103. 자식은 항상 [菽水之供]의 효도를 다해야 한다. (     )
- 주104. 그는 [冢中枯骨]처럼 뛰어난 재능의 소유자이다. (     )

※ [     ] 안의 문장의 뜻에 부합하는 成語를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- 주105. 지금의 열악한 조조의 군사는 마치 [사마귀가 앞발을 휘두르며 거대한 수레바퀴를 막으려는 것]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. (     )
- 주106. 임금이 [날이 채 밝기 전에 옷을 입고 해가 진 후에 저녁밥을 먹으며] 정사에 전념하니 나라가 크게 융성해졌다. (     )
- 주107. 그는 상사에게 [종기의 고름을 빨고 치질 앓는 밑을 핏는 듯이] 아침을 한 보람도 없이 승진 추천을 받지 못했다. (     )
- 주108. 열 번 연속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한국 여자양궁 선수들에게 내외신 기자들이 [수레 바퀴통에 바퀴살이 모이듯 몰려들어] 열띤 취재를 하였다. (     )

※ 성어의 속뜻을 쓰시오.

- 주109. 賽神萬明 (     )
- 주110. 斧鉞之下 (     )
- 주111. 吹毛覓疵 (     )
- 주112. 庖丁解牛 (     )

※ 다음 문장에 해당하는 우리말 속담을 쓰시오.

- 주113. 窮人之事 飜亦破鼻 (     )
- 주114. 不燃之突 煙不生 (     )
- 주115. 才食一匙 不救腹飢 (     )
- 주116. 獨木橋 冤家遭 (     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且猶之於亦與自雖但焉苟而以

주117. 飯疏食飲水 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矣 不義而富○貴 ○我 如浮雲

《論語》 ( , )

주118. 人之性 惡 其善者 僞也 今人之性 生而有好利○順是故 爭奪生○辭讓亡焉 《荀子》 ( , )

주119. 後生可畏 焉知來者○不如今也 四十五而無聞焉 斯○不足畏也已

《論語》 ( , )

주120. ○非吾之所有 ○一毫而莫取

《赤壁賦》 ( , )

※ 문장의 ○ 안에 들어갈 漢字를 <보기>에서 찾아 차례대로 쓰시오.

<보기> 弱憶陷務官倦軟驅識柔貴怠亡

주121. 默而○之 學而不厭 誨人不○ 《論語》 ( , )

주122. ○之死地而後 生 置之○地而後 存 《史記》 ( , )

주123. 齒以強折 舌以柔存 ○能勝剛 ○能勝強 《老子》 ( , )

주124. 有○守者 不得其職則去 有言○者 不得其言則去 《爭臣論》 ( , )

※ 주어진 국역을 참고하여 [ ]안의 漢字들을 알맞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시오.

주125. [海河擇不深細流故] 《十八史略》

국역: 큰 바다는 작은 물줄기일망정 가리지 않았기에 깊어졌다.

( )

주126. 學不可以已 [取青青之而於於藍藍] 冰水爲之而寒於水 《荀子》

국역: 배움은 그만 둘 수 없으니 푸른 색은 쪽풀에서 취했으나 쪽보다 푸르고, 얼음은 물로 만들었으나 물보다 차다.

( )

주127. [矣日月延我歲逝不] 嗚呼老矣 是誰之愆 《古文眞寶》

국역: 해와 달은 가고 세월은 나를 위해 더 늘어나지 않는다. 아! 늙어가는구나! 이 누구의 허물인가?

( )

주128. 德之流行 [置傳而郵於速命]

《孟子》

국역: 덕의 퍼짐은 역참에 파발마를 두어 명령을 전하는 것보다 빠르다.

( )

※ [ ] 부분을 국역하시오.

주129. 古之學者 必有師 [師者 所以傳道授業解惑也] 《師說》

( )

주130. 夫子之任 見季子 [之齊 不見儲子]

《孟子》

( )

주131. 焉有仁人在位 [罔民 而可爲也]

《孟子》

( )

※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.

(가) <㉠詠井中月> - 李奎報

山僧貪月色 并汲一瓶中

㉡到寺方應覺 瓶傾月亦空

(나) <㉢> - 李齊賢

㉣憶君無日不霑衣 政似春山蜀子規

爲是爲非人莫問 只應㉤잔월효성知

(다) <㉦訪金居士野居> - 鄭道傳

㉧추음막막四山空 落葉無聲滿地紅

立馬溪橋問歸路 不知身在畫圖中

주132. ㉠을 국역하시오.

( )

주133. (가)의 ‘山僧’이 ‘瓶’에 담은 것을 2개 이상 쓰시오. ( )

주134. ㉡을 국역하시오.

( )

주135. (나)는 李齊賢이 漢譯한 高麗歌謠이다. ㉢에 들어갈 이 詩의 제목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 ( )

주136. ㉣을 국역하시오.

( )

주137. ㉤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( )

주138. ㉦을 국역하시오.

( )

주139. ㉧을 漢字(正字)로 쓰시오.

( )

주140. (다)에서 物我一體의 경지를 나타낸 詩句를 찾아 국역하시오.

( )





# 제117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1)

## ■ 객관식 ■

|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    |   |
|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----|---|
| 1 | ② | 6  | ④ | 11 | ② | 16 | ③ | 21 | ① | 26 | ④ | 31 | ③ | 36 | ③ | 41 | ③ | 46 | ③ |
| 2 | ② | 7  | ① | 12 | ④ | 17 | ① | 22 | ④ | 27 | ① | 32 | ② | 37 | ④ | 42 | ① | 47 | ② |
| 3 | ③ | 8  | ③ | 13 | ① | 18 | ④ | 23 | ③ | 28 | ③ | 33 | ④ | 38 | ② | 43 | ④ | 48 | ③ |
| 4 | ① | 9  | ② | 14 | ③ | 19 | ③ | 24 | ② | 29 | ② | 34 | ① | 39 | ① | 44 | ③ | 49 | ① |
| 5 | ④ | 10 | ③ | 15 | ④ | 20 | ③ | 25 | ③ | 30 | ① | 35 | ④ | 40 | ④ | 45 | ② | 50 | ④ |

## ■ 주관식 I ■

|     |          |     |        |     |    |     |      |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주1  | 새털 창     | 주21 | 감부기불 신 | 주41 | 재량 | 주61 | 程→井  | 주81  | 賭博   |
| 주2  | 진눈깨비 영   | 주22 | 떨릴 전   | 주42 | 침지 | 주62 | 荒→皇  | 주82  | 鬚髯   |
| 주3  | 우두커니 저   | 주23 | 木      | 주43 | 사력 | 주63 | 著→抵  | 주83  | 捏造   |
| 주4  | 비녀 차/채   | 주24 | 大      | 주44 | 하해 | 주64 | 炎→焰  | 주84  | 截取線  |
| 주5  | 폐백 지     | 주25 | 宀      | 주45 | 접선 | 주65 | 紛→焚  | 주85  | 空豁   |
| 주6  | 맑은술 제    | 주26 | 子      | 주46 | 구름 | 주66 | 訥澁   | 주86  | 齷齪   |
| 주7  | 그릇 완     | 주27 | 纒      | 주47 | 저간 | 주67 | 矜恤   | 주87  | 脊椎   |
| 주8  | 겹옷 겹     | 주28 | 溜      | 주48 | 천권 | 주68 | 佩瓢   | 주88  | 鹵獲   |
| 주9  | 뇌사/조문 뉘  | 주29 | 腆      | 주49 | 준축 | 주69 | 尺牘   | 주89  | 奧密稠密 |
| 주10 | 멀 형      | 주30 | 樸      | 주50 | 와즙 | 주70 | 筌蹄   | 주90  | 酒煎子  |
| 주11 | 솟을 용     | 주31 | 鑄      | 주51 | 유액 | 주71 | 殄殲   | 주91  | 暝    |
| 주12 | 초 혜      | 주32 | 禊      | 주52 | 사릉 | 주72 | 攪拌   | 주92  | 眇/瞻  |
| 주13 | 신 구      | 주33 | 陌      | 주53 | 외연 | 주73 | 眩惑   | 주93  | 摸    |
| 주14 | 순행할 라    | 주34 | 矇      | 주54 | 삼투 | 주74 | 樗蒲   | 주94  | 睛    |
| 주15 | 소곤거릴 침   | 주35 | 梶      | 주55 | 여지 | 주75 | 澱粉   | 주95  | 藏    |
| 주16 | 누룩 국     | 주36 | 蒂      | 주56 | 난로 | 주76 | 青藜杖  | 주96  | 沾    |
| 주17 | 흐를 곤     | 주37 | 嬖      | 주57 | 傳喝 | 주77 | 臍臟癌  | 주97  | 幡    |
| 주18 | 모일 준     | 주38 | 廓      | 주58 | 全蠍 | 주78 | 邀擊   | 주98  | 蕭    |
| 주19 | 기장 량     | 주39 | 歉      | 주59 | 掩護 | 주79 | 退嬰的  | 주99  | 嶮    |
| 주20 | 닿을/부딪칠 창 | 주40 | 孿      | 주60 | 掩壕 | 주80 | 蔓延/衍 | 주100 | 袒    |

# 제117회 한자자격시험 사범급 모범답안 (2)

## ▣ 주관식 II ▣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주101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18 | 焉，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5 | 鄭瓜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02 |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19 | 之，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6 | 님 그리워 옷 적시지 않는 날이 없으니,              |
| 주103 | O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0 | 苟，雖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7 | 殘月曉星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04 | X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1 | 識，倦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8 | 김 거사의 시골집을 방문하다                     |
| 주105 | 螳螂拒轍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2 | 陷，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9 | 秋陰漠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06 | 宵衣旰食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3 | 柔，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0 | 모르겠구나, 이 몸이 한 폭의 그림 속에 있는지를.        |
| 주107 | 吮癰舐痔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4 | 官，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1 | ㉔: 동사, ㉕: 동사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08 | 輻輳/湊并臻                       | 주125 | 河海不擇細流 故深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2 | 그 나이가 나보다 먼저 태어나고 뒤에 태어남을 어찌 따지겠는가. |
| 주109 | 경망스럽고 방정맞은 사람.               | 주126 | 靑取之於藍而靑於藍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3 | 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10 | 제왕의 위엄,                      | 주127 | 日月逝矣 歲不我延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4 | 저 동자의 스승은 책을 주어 구두를 익히게 하는 자이니      |
| 주111 | 억지로 남의 작은 허물을 들추어냄.          | 주128 | 速於置郵而傳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5 | 작은 것은 배우고 큰 것은 버리니                  |
| 주112 | 어떤 일에 뛰어난 솜씨.                | 주129 | 스승이란 도를 전하고 학업을 가르쳐주고 의혹을 풀어주는 것이다. | 주146 | 聞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13 | 안되는 사람은 자빠져도[뒤로 넘어져도] 코가 깨진다 | 주130 | 제나라에 가서서는 저자를 만나보지 않으셨다.            | 주147 | 비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14 | 아니 뎨 굴뚝에 연기 날까               | 주131 | 백성을 그물질하는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?             | 주148 | 만날 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15 | 첫술에 배부르랴                     | 주132 | 우물 속 달을 읊다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49 | 위난한 때에 명령을 받든 지가 21년이 되었다.          |
| 주116 |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             | 주133 | 물(우물물), 달(달빛)                       | 주150 | 諸葛亮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주117 | 且，於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134 | 절에 돌아와 비로소 깨달았으리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